



오늘의 신앙레시피

혼인성사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창세 2,24)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 둘이 서로 짝을 이뤄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은 남녀 신자가 서로 사랑하여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성사가 ‘혼인성사’입니다. 혼인성사의 은총은 부부 사랑을 완성하고, 부부 사이의 일치를 강화하며, 부부 생활은 물론 생명의 전달과 자녀 교육을 통하여 성덕에 나아가도록 도와줍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640항).

혼인성사 때 신랑과 신부는 서로 한 몸이 되어 평생을 함께 살겠다고 하느님 앞에서 약속합니다. “나는 당신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을 남편으로 맞아들입니다.” 남녀가 자유로운 의사로 주고받는 혼인 계약은 하느님께서 묶어 주시는 사랑의 매듭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에서 자식들을 많이 낳고 기쁘게 살라고 푸르고 싱싱한 사랑의 매듭으로 신랑 신부를 묶어 주십니다. 하느님은 단 한 번 이 매듭을 묶어 주십니다. 두 사람이 영원히 함께 살라고 복을 내려 주시지요. 한 남자만을 남편으로, 한 여자만을 아내로 사랑하는 것을 단일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교회는 일부일처제가 아닌 어떠한 다른 형태의 혼인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묶어 주신, 이 매듭은 사람이 풀 수 없습니다. 이를 불가해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이 사랑의 매듭은 부부가 서로 존경하며 신의를 지킬 것을 요구하기에 유효하고 합법적으로 맺어진 혼인을 깨뜨리는 이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마태 19,6)

하느님의 부르심인 성소에는 성직자로 부름 받는 사제 성소와 수도자로 부름 받는 수도 성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의 결합인 ‘혼인 역시 성소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징인 부부 사랑을 실천하라는 특별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혼인하여 가정을 꾸리겠다는 결심은 성소 식별의 결실이어야 합니다.”(프란치스코, 『사랑의 기쁨』 72항)

“주님, 당신 이름으로 축복하는 이 결혼반지를 + 강복하시어, 이 반지를 끼는 신혼부부로 하여금 성실하게 서로 신의를 지키고, 주님의 뜻대로 평화 속에 머물러 서로 사랑하며 일생을 지내게 하소서.”(반지 축성문)

고준석 토마스데아퀴노 신부 |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부소장

천주교서울대교구

라인
성경채널



[화가를 사로잡은 성경 한 구절] **티치아노 베첼리오의 ‘아담과 하와’** (창세 3,11-13)

티치아노의 작품 <아담과 하와>에서 뱀은 마치 순수함을 가장하는 듯 얼굴과 상체는 어린 아기의 모습이고 하체는 뱀의 꼬리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유혹은 아이의 모습처럼 순수한 듯, 단순한 듯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뒷면에는 뱀의 꼬리를 감추고 있죠. 화가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도 죄의 습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강의를 통해 그림을 보시면서 더 자세한 그림 이야기와 묵상을 함께 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서울대교구 온라인 성경채널'에서 확인하세요! | 온라인 성경채널 사이트: online.catholic.or.kr